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 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 담당

11/29(화)	11/30(수)	12/1(목)	12/2(금)	12/3(토)	12/5(월)
홍광진 안수집사	김방현 안수집사	김현웅 안수집사	고성호 안수집사	전해용 안수집사	정명수 안수집사

2022년 12월 03일(토)

이른아침예배

(대림절 묵상)

인도 : 이진영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539장 다 같 이
기 도 전해용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5장 18~21절 인 도 자
찬 양 주께 찬양 새벽찬양대
설 교 『너희는 화목하라』 이진영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549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18~21>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2월 03일(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림절 묵상 이른아침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화목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내가 있는 곳에서 화목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며, 길을 보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돌보심을 고백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